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최근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작년 5월 10일 대통령 취임부터 최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는 모두 455개로 이 중 면접조사 139개, ARS 조사 316개다. 주간 단위로 적게는 두 개 많게는 19개의 여론조사가 실시되었다. 평균적으로 한 주에 여덟 개 내외의 여론조사가 있었다. 가장 많은 여론조사는 대통령 취임 1주년 때였다.

대통령 지지율은 4월 중순부터 상승 추세를 보인다. 지난 5주 동안 실시된 여론조사는 모두 54개였는데, 이 기간 동안 대통령 지지율은 평균 32.1%, 34.2%, 34.7%, 37.4%, 37.9%를 기록한다. 반면 대통령 부정 평가는 63.7%, 62.8%, 61.2%, 59.1%, 59%로 변화한다.

주별 평균으로 본 대통령 긍정 평가가 한 달 이상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다른 조사도 비슷한 양상인데 꺾임조사는 3주, 리얼미터 조사로는 4주 연속 상승을 기록한다.

이제 40%를 목전에 둔 대통령 지지율의 다음 목표는 40% 중반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선 승리의

위선과 무능, 쇠신과 미래의 유능

중도 보수 연합 재건이 중요하다. 대통령의 행보가 출발점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이 주목된다.

정당 지지율은 같은 기간 동안 민주당 하락세의 약보합, 국민의힘 상승세의 약보합 양상이다. 주별 평균으로 보면 지난 한 달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계속 앞섰지만 그 격차는 점점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지난 한 달 동안 가장 크게는 양당 지지율이 10% 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양당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로 좁아진다.

양당 지지율의 격차가 줄어들다는 것은 양당의 지지율의 흐름이 다르다는 말이기도 하다. 민주당의 최고 지지율은 한 달 전이고 국민의힘 최고 지지율은 가장 최근이다. 민주당 주별 평균 지지율은 이 때 최저 37.7%, 최고 42.7%를 기록한다. 국민의힘 주별 평균 지지율은 최저 33.7%, 최고 36%를 기록한다.

5·18에서 5·23까지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시간이다. '광주에서 봉하마을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까지는 아니더라도 민주당이 최소한 여론과 관심의 초점이 되는 기간이다. 그럼에도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 한 달 동안 하락세였고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윤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지지율이 하락한다.

추락하는 민주당 지지율은 연속된 구조적 위기의 당연한 결과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리더십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구태의 관행' 돈 봉투 파문에 이어 '갑남국의 신기술 코인' 파동이 이어진다. 앞선 데 덮친 격이다. 여당에 비해 잘하는 것은 고사하고 잘 못하지만 알아도 지지를 잃지는 않는데 스스로 자초한

위기다. 특히 김남국 파문은 '윤미향-양정숙-김홍걸-오거돈-박원순-노영민-김상조'로 이어진 위선 시리즈의 끝판왕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모습이다. 김남국 사태는 지금 시작으로 그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민주당 위선 시리즈'의 맨 앞에는 조국이 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세의 약보합인 것은 그들이 무엇을 잘한 결과는 아니다. 굳이 해석한다면 최근 대통령의 외교 성과에 기댄 부산물의 지지율 상승세다. '김재원과 태영호 정계' 이후 국민의힘은 여론의 관심에서 사라졌다. 야당은 실수하지 않으면 되지만 여당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잘해야 한다. 그래야 골든 크로스가 가능하다. 지금 여당은 무능의 다른 말이다.

국민의힘은 지금 내년 총선을 향한 조용한 준비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다. 벌써부터 영남 일부 지역에서는 몇몇 다선의 불감지와 이들을 대체하게 될 '검사 출신 공천살'이 유행한다. 어느 정도의 과장과 과해도 있겠지만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이름으로 윤석열의 중간 심판 선거'를 지향한다.

지금부터 내년 총선까지 양당은 '새로움의 도전'에 선다. 누가 먼저 '뉴(New) 민주당' 또는 '새로운 국민의힘'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냐의 시험대다. 양당 모두 누가 더 과거로 되돌아가느냐의 경쟁에서 벗어나야 할 시점이다. 이제 더 이상 서로가 서로의 등불과 희망이 되는 '반사 이익의 정치'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 과연 누가 위선과 무능의 정치에서 벗어나 쇠신과 미래의 유능한 정치를 보여 주느냐가 문제다.

社說

드라마 촬영 명소, '전남 관광' 자산으로 키우자

TV 드라마와 영화 속 명장면의 배경이 된 촬영지가 전남의 관광 명소로 뜨고 있다. 전남을 무대로 수백 편의 영화·드라마가 제작되면서 이들 촬영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전남에서 가장 많은 영화·드라마 촬영이 이뤄진 곳은 순천 드라마 촬영장이다. 최근 유명한 '오아시스'(KBS)와 '구미호전 1938'(tvN)을 비롯해 2006년부터 80여 편이 넘는 영화·드라마가 촬영됐다. 1만 2000평 규모의 세트장은 1960년~1980년대까지 시대별 세 개 마을로 꾸며졌다.

현재 인기리에 방영 중인 '어쩌다 마주친, 그대'(KBS)의 촬영지 화순 사평풍류마을도 핫 플레이스로 부상하고 있다. 1987년에 갇혀 버린 두 남녀의 시간 여행기를 다룬 드라마에 마을이 소개되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얼마 전 종영된 '더 글로리'와 '모범택시 2'(SBS)의 촬영지였던 옛 장

흥교도소, '조선변호사'(MBC)의 촬영장인 순천 낙안읍성 민속마을도 전국에서 여행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드라마 촬영지가 인기를 끄는 건 색다른 볼거리를 선호하는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드라마 등을 통해 감명 깊게 본 촬영지를 방문해 인증 샷을 찍는 등 특별한 경험을 누리기 위해서다. K-관광에 열광하는 외국인들이 이들 드라마 촬영지를 여행 1순위로 꼽는 것도 그런 이유다.

전남은 천혜의 자연 경관과 역사적 장소 등 드라마 촬영지로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드라마 촬영지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만은 아니다. 드라마 인기로 인한 편승하다 보면 지속성이 떨어지고 사후 관리 부실 등으로 애물단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촬영지가 반짝 인기가 아닌, 머물고 즐기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마케팅을 통해 전남 관광의 자산으로 키워야 할 것이다.

자영업자 '코로나 대출' 상환 추가 연장 필요하다

코로나19 확산 기간 이어졌던 대출 상환 유예 종료 시점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한숨 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 물가 인상으로 경영 부담이 커져 대출금 상환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 숙박 및 음식점업과 도·소매업의 예금은행 대출액은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지난 2019년 말 5조 7418억 원에서 지난해 말 8조 7263억 원으로 무려 52%나 증가했다. 여기에 저축은행과 같은 비예금은행까지 합치면 자영업자들의 대출액은 두 배에 달할 것이라는 게 지역 금융권의 분석이다.

한데 정부가 오는 9월 대출 상환 유예 조치를 종료하기로 하면서 자영업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대출 특별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했다. 이 가운데 만기 연장은 오는 2025년 9월

까지 자율 협약에 의해 가능하지만, 상환 유예는 올해 9월 말까지 추가 연장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따라서 10월부터는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황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경기 악화로 채무가 늘어난 데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이자 비용까지 늘었다며 울상이다. 아직 대출 상환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매출과 수익을 회복하지 못했다지만, 연신 대포살인 격으로 전기·가스 요금까지 잇따라 인상되면서 경영 부담은 되려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원금 상환을 압박하는 것은 '불쏘시개를 지고 볼 속으로 뛰어 들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하소연이 곳곳에서 나온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대출 상환 유예 조치의 추가 연장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아울러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는 채무자가 늘고 있는 만큼 자영업자 부채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종교칼럼

어미 닮은 병아리를 품고 죽더라

저서 답답하셨을 것이다. 이젠 거동이 많이 힘들고 지팡이를 짚고 걸으셔야 할 정도로 연세가 드셨다. 나는 8남매 형제자매 중에 아버지를 가장 많이 닮았다. 젊을 때 사진을 보면서 왜 내가 저기에 있지 할 정도로 많이 닮았다. 하지만 이제 많이 늙어서 구십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는 나하고 닮은 것을 찾기 힘들어 진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어릴 적 육상부 고지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생각난다. 역도 선수였던 전병관 씨의 고향인 전북 진안군 마량읍의 한 목길에서 운동할 때였다. 예전에 시골에서는 병충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논이나 밭둑에 불을 놓아 풀들을 태웠다. 그런데 모두 타버린 곳에서 어미 닭이 병아리를 품은 채로 죽어 있었다고 했다.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당시에도 충격이기도 했고 30년이 훌쩍 넘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자식들을 보호하려고 그 뜨거운 불길에서 죽어갔을 어미 닭을 생각하니 무척 가슴이悶하다. 어미 닭은 그 불길이 무섭지 않았을까. 죽은의 공포에서 반사적으로 움츠릴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다. 하지만 어린 병아리들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른 채 어미 품속에서 자다 깨어난 듯 튀어 나왔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생각하며 주님이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마치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만군의 하나님은 새가 날게 하며 그 새끼를 보호하는 것과 같이 자녀가 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이사야 31:5).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 천지본간 못하고 돌아다니는 어린 병아리들과 같다. 숨 한번 내쉬

었다가 들이마시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 상황에 놓여 있는 인간인 셈이다. 인간은 한 치 앞도 모르는 낙약한 존재이다. 지금 이곳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이 품안에 따뜻하게 품고 계신다는 것을 자주 잊어 버리곤 한다.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 또한 당연하게 받아들이거나 마치 부족한 것인 양 서운한 마음을 크게 갖는 것 아닌가 싶다.

나의 아이들과 어릴 적 '마당날 나온 암탉'이라는 에피소드 영화를 함께 본 적이 있다. 양계장에서 평생 알을 낳다가 죽을 운명을 가지고 있던 암탉이라는 암탉이 그곳을 도망쳐서 새로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이야기이다. 족제비로부터 생명을 구해 준 청둥오리의 알을 품어 부화하게 되고 아기 오리 초록이는 그 암탉을 암마로 여긴다. 암마와 닭이 없어서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아 상처받은 아기 오리를 달래고 사랑을 주며 키워 나간다. 어느덧 장성하여 청둥오리 무리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는 초록이, 그런 오리 새끼를 키우기 위해 모든 시간과 힘을 쏟아 버린 암탉은 결국 어느 추운 겨울 새끼를 살리기 위해 먹이감을 구하는 암마 족제비에게 기꺼이 자기를 잡아 먹으라 하며 영하는 끝이 난다.

부모님을 나를 위한 희생의 존재로만 여기던 생각에 큰 영감을 주는 장면이었다. 그분들 또한 자녀요, 형제이며, 친구이고, 동료였다. 그리고 제자였다. 그리고 이 땅의 소중한 한 그루 나무처럼 아낌없이 주는 존재였다.



최현열
광주 은교회 담임목사

GS워너비의 멤버인 김진호가 부른 가족사진이라는 노래를 들어보면 "내 젊음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사진 속에 미소 띤 젊은 우리 엄마, 나를 꽃피우기 위해 거름이 되어버렸던"이라는 노랫말이 있다. 어느 덧 인생의 여여곡절을 겪으며 젊이 들 무렵의 나는, 어릴 적 찍은 낡은 가족사진 속의 아빠를 닮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사진 속의 젊은 아가씨 같은 우리 엄마는 나를 위해 희생하며 그 짧은 시간들을 보냈다는 노래이다. 노래를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연신 눈물을 쏟아내게 하며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다시 느끼게 해 준다.

얼마 전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을 뵙고 왔다. 지난번 찾아 보았을 때 전동차를 구입하고 싶다고 하셔서 배승 예약을 하고 왔기 때문에 잔금도 치르고 전동차도 받아야 해서 다시 시골에 간 것이었다. 이제 노령이라 운전 을 하시면 안 되는데도 평생 운전하셨다는 자만심이신 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골에 있는 차를 운전하셨다. 이렇다 안 되겠다 싶어 형제들과 상의 끝에 그 차를 정리 해 버렸다. 아버지 입장에서 이제 이동 수단이 없어

당신은 여전히 통일이 소원인가

가치(intrinsic value), 즉 '그 자체로' 추구할 가치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은 약해지고 있다.

통일이 '나의 진정한 소망'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설문 응답자 가운데 22.7%만이 매우 혹은 조금 동의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라고 여기는 이들이 한국인 네 명 가운데 한 명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히려 이 주장에 대하여 전혀 혹은 별로 동의하지 않느냐며 부정적으로 응답한 이들이 50.7%에 달하였다. "경제 문제가 통일 문제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응답자는 8.7%에 불과하였다.

다만 통일의 외재적 가치(extrinsic value), 즉 수단으로서의 가치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훨씬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통일이 "한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거나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 해소에 기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이들은 각각 65.0%와 72.4%였다.

이와 같은 통일 인식은 통일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 평가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조사에서도 통일이 실현 가능한 과제라고 인식하는 이들은 21.4%이며, 통일이 20년 이내에 가능할 것이라고 응답한 이들 또한 19.2%에 불과하였다. 통일의 수혜자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또한 주목할 만하다. 이 조사에서 통일이 국가 전체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이들은 63.8%였던 반면,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이들은 불과 24.7%였다.

통일이 '북한 주민'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이는 무려 83.7%였다. 이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통일의 수혜자가 자신이라는 생각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통일이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높은 관심이나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통일의 외재적 가치에 편중된 인식은 민족주의를 동원하거나 민족 감정을 자극하는 감정적 호소보다 경제 발전이나 전쟁의 위험을 해소하고 평화를 증진하는 수단으로서 통일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통일 교육의 초점을 전환할 필요성을 보여 준다. 시민들 자신이 통일의 수혜자라는 인식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시민들이 통일의 가치를 재인식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다.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지니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본문의 제4조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하고 제66조에는 대통령에게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북한을 '주적'으로 두고 초유의 군사 훈련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의 '평화적 통일'을 이루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기울이는 행위가 반헌법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동안 통일의 의무를 얼마나 성실히 수행하였는가를 되돌아보아야 할 때이다.

기 고



지병근
조선대 교수

서구의 역사에서 '민족 국가'는 전쟁을 통해 분리되어 있던 봉건 영토를 통합하는 근대 국가 형성 과정에서 등장하였다고 할 수 있다. 국가는 막대한 전비를 마련하기 위해 시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야 했고, 이를 강제하기 위한 행정 능력을 키워갔다. 시민들이 민족 국가라는 정치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은 필수적이었다. 민족이 '상상된 공동체'(imagined community)라는 베네딕트 앤더슨의 말처럼 '하나의 민족'이라는 인식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성되는 것이다. 이는 외세에 의해 분단되었고 '재통일'의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세월에는 장사가 없는 것처럼 과연 1953년 휴전 이후 장기간 분단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시민들에게 통일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여전히 통일을 소원이라고 여기고 있을까? 최근에 발간된 통일연구원(KINU)의 통일 의식 조사(전국 1000명, 2022.4.6~5.2, 대면 면접 조사, 조사 기관 한국리서치)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의 시민들이 통일을 내재적

無等鼓

"어두운 밤 함께 하던 젊은 소리가 허공에 흩어져가고 / 아침이 올 때까지 노래 하던 내 친구 어디로 갔나 / 머물다간 순간들 남겨진 너의 그 목소리 / 오월의 햇살 가득한 날 우리 마음 따스하리." 이 선현의 '오월의 햇살'은 1980년 5월 26일의 광주를 떠올리게 한다. 43년 전 오늘, 5월 항쟁의 마지막 밤을.

전남도청엔 이제 곧 계엄군이 온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은 300여 명이었다. 그들은 왜 총을 들었을까. 왜 끝까지 남았을까. 카빈 소총을 들고 정

오월의 햇살

에 공수부대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아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 밤이 끝이라는 것을. 그러나 그날 도청에 아무도 남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5월 광주의 의미는 지금과 많이 달랐을 것이다.

이슬비가 어둠을 적셨다. 잠 못 드는 밤은 새벽까지 이어지고, 3시 50분께 도청 옥상 스피커에서는 애절한 여성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시민 여러분, 지금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주를 사수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전두환이 정권을 잡으면 '5월 광주'를 지울 테니까. 살아 있는 사람들이 기억하고 세상에 알려 달라는 것이다.

애절한 목소리가 멈추자 이번에는 총소리가 울렸다. 3공수 특공조가 작전을 개시한 것이다. 탕 탕 탕, 드르륵... 탕 탕 탕, 드르륵 드르륵... 시민군의 항쟁은 길지 않았다. 불과 2시간 정도. 그러나 가족, 친구, 이웃을 도청에 두고 집에서 그 총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나

긴 시간이었다. 잔인한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왔

다. 금남로에 탱크와 장갑차가 들어오고, 공수부대원들은 희생자들의 시신을 앞에 두고 승전가를 불렀다. "안되면 되게 하라 특전부대 용사들..." 그렇게 열흘간의 항쟁이 끝났다. 역사학자 한홍구 교수는 이날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간직한 사람들

이 7년 뒤 6월 항쟁을 이끌었다고 말한다. 어두운 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도청을 지킨 그들은 어떤 세상을 꿈꿨을까. 우리는 지금 그들이 꿈꾼 세상을 살고 있을까. /유재만 편집장@1국장 jkyou@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52 경 회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42 전 남 본 부 220-0680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3 체 육 부 220-0621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